



주 제:	“너희는 증인이다.”	“예수 승천 대축일” (다해)	2007년 5월 20일
복음 묵상:	[루가 24,46-53]	[사도 1,1-11]	[에페 1,17-23]

“갈릴래아 사람들아, 왜 하늘을 쳐다보며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 승천하신 저 예수님께서서는, 너희가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사도 1,11).

우리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일상의 삶 안에서 그리스도의 삶을 증언하고 복음(福音)을 전하는, 행동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할 것이다. 실천하지 않는 믿음, 행동하지 않는 신앙은 죽은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기에도 부족한 나날들을 미움의 시간표를 빼곡히 채우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반성하며, 이미 우리 안에 시작된 하느님 나라의 완성을 향하여, 두 발을 땅에 딛고 하늘의 압바(Abba)를 그리워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겸허한 신앙을 청해 봅니다. (김지영 사무엘 신부·미아 3 동성당)

성가대 소식

1. 30주년 음악제 준비를 위한 연습을 시작하였습니다.
곡목은 김희조 편곡 “응혜야” 인 우리 민요입니다.

2. **가족 동정**

- 최효원 도미니카 자매님과 윤안도 요셉 형제님 서울 방문 마치고 무사히 돌아오셨습니다.. 그 동안 기도해 주신 모든 가족들에게 감사드립니다.
- 조병화 솔로몬 형제님 4/20(금) 3개월 예정으로 한국으로 나머지 정리 차 여행중에 계십니다.
- 구영조 요한 형제님 5월 26일 한국으로 귀국하실 예정입니다. 말없이 입단하시고 열심히 봉사하시다가 불연듯 떠나시게 되어 모든 가족들의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여행중이신 모든 가족들에게 주님이 동행하시기를 기도합니다.

3. **기도 요청**

- 최 창식 세바스찬님(최엘리사벳 시부님)께서 팔순을 맞으셨습니다. 축하 드리며, 필요한 모든 은총을 내려주시길 기도 중에 기억해 주십시오
- 전 마리아 막달레나 자매님, 심한 목감기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기도중에 기억해 주십시오.
- 김 인숙 세실리아 자매님, 심한 기침 알레지로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빨리 회복 될 수 있도록 기도중에 빌어주십시오.

+ 복음 [루가 24,46-53]



"성서의 기록을 보면 그리스도는 고난을 받고 죽었다가 사흘만에 다시 살아난다고 하였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면 죄를 용서받는다라는 기쁜 소식이 예루살렘에서 비롯하여 모든 민족에게 전파된다고 하였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나는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 주겠다. 그러니 너희는 위에서 오는 능력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예수께서 그들을 베다니야 근처로 데리고 나가셔서 두 손을 들어 축복해 주셨다. 이렇게 축복하시면서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 가셨다. 그들은 오히려 예수께 경배하고 기쁨에 넘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날마다 성전에서 하느님을 찬미하며 지냈다.



기도나 선행의 댓가가 당사자에게 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 공동체 즉, 신전교회, 단련교회, 개선교회에 속한 다른 이에게도 그 댓가를 줄 수 있어 다른 이를 위해 서로 돕고 기도할 수 있고 서로 공을 나눌 수 있다. 이를 통공이라고 말한다. 예를 들어, 성인 성녀께 자기를 위해 하느님에게 기도해 달라고 할 수 있으며, 특히 연옥 영혼을 위한 우리의 기도는 하느님께 전달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기도나 선행의 댓가가 당사자에게 만이 아니라 천국이나 연옥의 다른 이들과도 통한다고 해서 이를 통공 혹은 모든 성인의 통공이라고 일컫는다.



♥ 삶은 신선해야 한다. ♥

"결코 아는 자가 되지 말고
언제까지나 배우는 자가 되어라."

줄줄 쉴 새 없이..
흘러내리는 시냇물은 썩지 않듯이,
날마다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언제나 활기에 넘치고,
열정으로 얼굴에 빛이 납니다.

고여 있지 마시길...
멈춰있지 마시길...

삶은 지루한 것이 아닙니다.
삶은 권태로운 것이 아닙니다.

삶은 신선해야 합니다.
삶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삶은 사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신이 하는 일에 열중하고 몰두할 때
행복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결코 아는 자가 되지 말고
언제까지나 배우는 자가 되십시오.

고민은
어떤 일을 시작하였기 때문에 생기기보다는
일을 할까 말까 망설이는 데에서
더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망설이기보다는 불완전한 채로 시작하는 것이
한 걸음 앞서는 것이 되기도 합니다.

새로움으로 다시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어떠한 경우라도
마음의 문을 닫지 말고
항상 열어두도록 하세요.

마음의 밑물과 썰물이 느껴지지 않나요?
밑물의 때가 있으면,
썰물의 시간이 있기 마련입니다.

삶이란, 어쩌면
행복과 불행, 기쁨과 슬픔,
행운과 고난의 연속 드라마인 것을...

하루치의 발전된 삶이
아름다운 당신에게도 있었기를 소망합니다.